

“누가복음 7장 17절~23절 강해 설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7장 17절~23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352장(새찬송가 313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함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시는 광경을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목격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시신이 운구 도중에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살아난 사건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왕을 책망한 까닭에 붙잡혀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면회하는 것을 누구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갇힌 몸이 되었지만 그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계시를 받아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지식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활동에 관한 소식을 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둘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내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묻게 하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야’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수님이 메시야로서 심판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눅 3:9)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자신의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눅 3:16,17)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야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로서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일을 속히 행하기를 학수고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관한 소식을 들어보니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뿐이고, 심판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메시야가 아직 오시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의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 대답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혹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모두 의심을 가지게 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요한이 저희를 당신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여쭙어 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로부터 고쳐 주시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맹인들이 보고, 앓은뱅이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실족’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올무, 함정, 장애물’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길에 놓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거침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실족하다’는 말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다, 이탈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경주(競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경주는 장애물 경주와 흡사합니다. 방심하면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산재(散在)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마 18:7)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관련하여 실족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는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실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곳’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곳을 찾으려면 속히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을 당하여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지독한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나는 신앙을 버린다.” 혹은 “누구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는 말은 “나는 무슨 이유로, 누구 때문에 지옥에 가기로 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옥이 실재(實在)하며,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과 발 혹은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손과 발을 찍어 내버리고 눈을 빼어 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족하여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한 곳인가를 예수께서 친히 형용하시기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 할 것이다”(막 9:48,49) 하였습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으며 죽음이 피하는 곳입니다. 영영히 불 타는 곳입니다.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뜨거운 불에 탄 몸에 소금이 뿌려지면 그 고통의 강도는 극심하게 됩니다. 지옥에는 비상구나 탈출구가 없습니다. 어찌하든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걸림이 되는 말과 행동을 접하게 되어 실족하는 사람은 지독하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실족하게 하는 원인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대로가 아닌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이탈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이라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치유하는 일과 죄 사함 받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초림하신 예수님과 장차 세상을 심판하려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란 두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하게 하였고 그들이 듣고 온 대답으로 인해 오해가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메시야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고 실족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메시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야를 바랐던 것입니다.

신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 중에 가장 사악한 계략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되게 알고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실족하였습니다. 이단에 미혹되어 실족하는 신자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한편 기이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훈계는 명심하지 않고 오히려 행실이 나쁜 친구의 말에 솔깃하여 가출하는 자식이 있듯이 교회에서 듣는 진리의 말씀보다 이단들의 감언이설과 교활한 가르침에 솔깃하여 끌려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책망하고 경계(警戒)하기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 구나.” 하였습니다. 실족한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다른 예수’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하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알려진, 왜곡된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

다. 그 왜곡된 가르침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역사상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신화와 전설에 속하는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감화를 줄 수 있다면 전설적 인물이든 실존 인물이든 문제될 것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단군은 실존인물이 아닙니다. 신화에 나오는 그대로의 실존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은 고퍜의 후손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연히 단백질의 합성으로 생겨난 단 세포 아메바에서 진화가 거듭되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자들도 있으니 아메바의 후손보다 고퍜의 후손이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잉태는 초자연적이거나 출산은 정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이 땅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가 말하는 예수는 성경대호가 아닌 '다른 예수'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역사상 실존 인물이지만 종교적으로 걸출한 위인일 따름이지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군자 중에 속하는 위대한 인물로서 추앙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양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며 또한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세상의 사물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물은 모두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 알 뿐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1-3),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 10:30)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보통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거부감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예수는 성경대호가 아닌 '다른 예수'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하여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분리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는 인간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를 떠나셨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상은 영은 선하나 물질은 악하다는 헬라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악한 물질인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을 따름이라고 하고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그를 떠나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나 물질은 악하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천지창조 기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곤하여 주무셨습니다. 겻제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사셨고, 고난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 성경대호가 아닌 '다른 예수'입니다.

넷째,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부활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사상태에 있다가 살아나서 무덤을 탈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끌려 다니며 참혹하게 심문받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진 채 갈대로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열두 갈래 난 채찍 끝에는 쇠붙이나 짐승의 뼈 같은 것이 달려있습니다. 이 채찍을 들어서 치면 등과 허리에 받고랑처럼 파였습니다. 피가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군병이 확인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굴로 된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무덤은 육중한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령 가사상태에서 깨어났다 하여도 그런 몸으로 세마포를 풀고 일어나서 육중한 돌문을 열어젖히고 군병들과 싸워서 탈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옮겨 숨겨 놓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허위낭설을 퍼트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싸여서 집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걸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낙담하여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숨겨 놓고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트리기 위해 온갖 박해를 당하고 순교까지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바랐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그것이 실재인 것처럼 여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 반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어도 제자들은 오히려 이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을 때도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들이 보는 것을 영(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바랐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그것이 실재인 것처럼 여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주장이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성경대호가 아닌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성경대호가 아닌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저주가 선언되었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미혹을 당하고 실족할 위험에 처하여 있습니다.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구원받음에 있지 아니한 신자는 걸핏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주된 이유가 육에 속한 것이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첫째, 현실생활에서 자신이 기도하고 믿는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거나 결과가 나오면 '예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여 실족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충족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실족합니다.

셋째, 교회생활에서 마음에 상처 입는 일을 당하면 실족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신자들의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면 세상적인 모임과 달라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천사들이 모인 것과 같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하여 가면 신자가 천사되지 않음은 피장파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당히 해매게 됩니다. 혹 실족하는 이도 있습니다. 다른 분의 신자답지 못한 언행뿐 아니라 교회를 헐뜯기 위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심하게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넷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실족합니다.

여하튼 실족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들 중에서 주된 것이 구원 얻음이야 합니다. 구원의 핵심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든지 무신론자로 살든지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원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신앙의 주된 이유인 성도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말합니다. **“주님, 내가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는 것과 다를 경우에는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제가 구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지라도 저는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한 편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3,4,8,9)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기록되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동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히 2:3) 하였습니다. 인생에게는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선되고 주된 이유인 성도는 다른 사람이나 곤경이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되고 부합(符合)되기를 바랍니다.